

‘제9회 명원차문화대상’

공로상에 中 정혜 스님

민속학자 임동권 교수 학술상, 선 다례·다계작법 시연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혜 스님이 ‘제9회 명원차문화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명원차문화대상은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이 다도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외국인인 선정된 것은 2002년 일본 센리쿠 우라센케(天利休 真千家)의 15대 가원(家元)인 센소시스(千宗室) 박사에게 이어 두 번째다.

10월 18일 저녁 방한한 스님은 19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을 계기로 한중 차문화 교류와 우호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이원홍 前 문화공보부 장관, 서양권 한국계 대표를 비롯해 1천여 명이 참석했다.

1935년 출가한 정혜 스님은 88년 중국 허북성 불교협회 창건에 참여했으며 89년 불교잡지 <선(禪)>을 창간하는 등 ‘생활선 활동’에 앞장서 왔다. 98년부터 허북성 백림선사 주지를, 2001년부터 허북성 불학원장을 맡아 불교와 차문화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인터뷰 기사 참조)

거목. 임 교수는 이번 명원차문화대상 수상에 이어 20일 문화훈장 은관상도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 교수는 서라벌예술대의 중앙대 교수를 거쳐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심의위원, 백제문화연구원장, 학교법인 국약학원 이사장백제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과 전통문화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임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차문화와 그의 인연이 깊지 못한 민속학도에겐 이런 상을 준 것은 앞으로 차문화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민속학적인 연구를 해 나가려는 체적질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신라 왕족 출신인 무상 스님의 ‘선 다례’와 연꽃을 들고 탐돌이를 하는 연등회 시연, 동회 스님의 다계작법(茶作法)이 펼쳐졌다. 신라 성덕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무상 스님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사천성 정중사를 중심으로 선사상을 구현한 인물. ‘선 다례’는 무상 스님의 ‘무여 무념 막망’을 다례로 표현한 것으로, 명원문화재단이 2001년 처음으로 발표한 다법이다. (02)730-7191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10월 1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명원차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선보인 신라다례 연등회 모습. 연등을 든 사람들이 탐 돌이를 돌며 가족과 국가의 평안을 기원한다.



“차 공양 하듯 살면 세계 평화로울 것”

인터뷰 정혜 스님

제9회 명원차문화대상 공로상을 수상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혜 스님(사진)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저 혼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차문화 발전에 힘써 온 모든 차인들에게 주는 것”이라며 “다양한 민간교류활동을 통해 세계인이 선다(禪茶)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수상 소감은? -지난 2001년 명원문화재단이 중국 백림선사에 ‘조주고불선차기념비’를 건립하면서 한국 차문화와 인연을 맺게 됐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차문화 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여기겠다. 차 마시는 것과 선(禪)은 생활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차 한잔을 주위에 공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세계는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다.

▲한국과 중국 차문화의 차이점은? -중국의 차문화는 일상적인데 반해 한국의 차문화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된 것 같다. 차를 마시는 의식이 온전히 보존돼 있고 다례 과정 하나하나에 선불교의 사상이 녹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차문화가 진일보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또한 차를 마심으로써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을 ‘초의상’에 이원홍 前 장관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기리는 제13회 초의문화제가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해남 대흥사와 해남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7일 오전 10시 대흥사 대웅전에서 ‘선고다인 추모다례제’도 개최될 예정이다. 차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선고다인 추모다례제’는 효당 스님과



지난해 열린 12회 초의문화제에서 초의 스님 동상에 헌다하는 모습.

내달 6~7일 초의문화제 근현대차인 추모행사도

문화 스님, 금강 최규용 옹 등 우리나라 근현대 차문화 발전에 앞장섰던 다인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풍산, 대흥사 주지)는 “올해부터는 다회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100 가족 들차회’와 행사 기간 중 산사체험을 할 수 있는 ‘차의 향연 템플스테이’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100가족 들차회’는 차를 즐겨 마시는 가족 2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주최측이 제공하는 차를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공양한다. 참가비는 무료. 초의문화제 행사에 참가하며 산사에서 1박을 할 수 있는 ‘차의 향연 템플스테이’에서는 발우공양과 참선, 예불 등 사찰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 1만원.

한편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시상하는 초의상 수상자에는 이원홍 前 문화공보부장관이 선정됐다. (061)535-0986

박병근 교수 ‘리서치 어워드’ 수상



박병근 교수(마산대 한약재개발과·사진)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일본 시즈오카(静岡)에서 열리는 ‘2004 국제 녹차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 culture and science, 이하 ICOS)’에서 우수연구 발표자로 선정돼 ‘리서치 어워드(Research award)’를 수상한다.

한국차학회 이사로 활동 중인 박 교수는 지난 6월 30일 ‘다학의 구조와 갈래(Structure and Categories of Teacis)’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출해 400여 명의 참가자 중 우수논문발표자로 선정됐다. 박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차와 관련된 전공분야를 189개로 세분화한 뒤, 이를

‘다학(茗門 Teacis)’이라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차와 관련된 연구를 ‘다학’이란 이름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피아골 단풍과 녹차의 만남 10월29일 시음·시연 행사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남 구례군 토지면 임곡리 송림무대에서 개최되는 ‘제28회 피아골 단풍제’에서 차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구례차생산자 연합회는 구례농촌기술센터 차문화모임 등과 함께 다도 시연회와 무료 시음회를 마련해 단풍제 참가자들에게 차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단풍제 기간 중에는 특별 코너에서 녹차를 시음할 수 있고 30일과 31일 낮 12시 30분에는 다도 시연회를 감상할 수 있다. (061)782-0301



유진경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이 시기 중국에서는 차가 약용으로는 물론 음용(飲用)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차의 보급이 확대되어 계층의 구분 없이 생활화되었고, 상품으로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차 문화의 배태기(胚胎期)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 차의 전래 중 하나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남방 전래설에서 본다면 가야 허황옥의

도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근래에 우리 말 속에 인도의 남방언어가 많이 섞여 있고 또 혈통까지 같은 유전자가 많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허황옥의 도래는 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당시 인도와 한 두 번의 교역이 아닌 인적(人的) 장기적 교류가 빈번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허황옥이 인도에서 올때를 전후해 차가 수입되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③ 백제는 일본과의 교류가 특히 많았다. 우리의 음료문화도 이때 벌써 일본의 왕실이나 귀족 사이에 전해졌다고 본다. ④ 청자저다음은 후한의 초기 유물로 중

‘허황옥 도래’ 茶와 깊은 관련

했고 그 수도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① 이배(耳杯)란 손잡이가 있는 잔 형태의 그릇을 말한다. 손잡이가 있었다는 점에 미루어 약이나 음료 등의 뜨거운 것을 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허황옥의 도래는 차가 전래된 역사적 국 절강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⑤ 중국도 이전부터 차를 마셨으나 불교가 전래되면서 선가(禪家)의 필수적 음료로 등장해 확산되었다. ⑥ 화타는 후한 때의 명의로 그가 지은 <식론>에 “쓴 차를 많이 마시면 생각이 도를 준다(苦茶久食 益意思)”라고 적혀 있다.

한 국	기원전 시대			서양기타
	중국	일본	고대사회	
3 고구려 국내성 천도 4 원시4년(元始四年)경(元始)이배(耳杯) 제작 ① 26 구다국왕(句婁國王) 고구려 투항 48 허황옥의 도래 ② 52 건무침(建武)이배 제작 57 신라, 왜(倭)와 사신이 오기다 68 영평명(永平)이배	8 신(新)의 건국(建國) 25 후한 건국(後漢) ④ 청자저다음(靑瓷貯茶器) 발굴 (열강성) ④ 67 중국에 불교 전래 ⑤ 82 반고의 한서(漢書) 105 채륜의 제지법(製紙法) 184 황간적인 난		고분시대	30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121 왜구의 침입 191 을파소(乙巴素)가 고구려 국상(國相)이 됨 247 고구려 평양천도	200 화타의 <식론(食論)> ⑥ 216 위(魏)의 건국 221 촉한 건국 222 오의 건국	고분시대	고대사회	286 동서로마 분리
283 백제, 봉의공녀(縫衣工女) 일본에 파견 284 아직기가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됨 ③ 285 왕인의 도일(渡日), 유교 경전 전달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나요? 차에 가까이 계시나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답습니다.

*권당 가격 6,500원.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관광과 방생을 한국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